

## 부산지역 세미나 축사

김 상 훈 부산일보사 사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 연도표기 문제 대응전략 부산지역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2000년 연도표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시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0년 표기는 컴퓨터의 용량을 고려해 1900년을 00으로 입력함으로써 같이 00으로 표기되는 2000년과 구별하지 못해 생기는 컴퓨터의 혼란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1980년에 입사한 사람의 근속연수를 2001년까지 계산하면 01-80--79로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또 1백 6세가 된 할아버지도 06-00 즉 6세로 인식돼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는 해프닝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 금융 및 산업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대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일보도 지난 9월 18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 <행정전산망 대혼란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한 우려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같은 2000년 표기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발등의 불'인데도 정부나 기업은 물론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등은 2000년 표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 행정부 등에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추정비용 8천 8백억원이 들어가는 이 국가적 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열린 국제번호사연차

총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전산장애는 물론 컴퓨터로 운용되는 사회간접시설의 오동작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빈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하는 경제적 사회적문제의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을 불과 3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 세미나는 크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과 중대성을 살펴보고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자리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다.

비록 2000년에 국한된 표기문제라 할지라도 컴퓨터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보다 철저한 대비와 기민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컴퓨터문제는 이제 어느 한 나라 한 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어디와도 연관된 국제적 전 인류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은 비단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확인할 뿐 아니라 현대문명이 갖기 쉬운 비인간적인 획일적인 결함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의 작은 오류나 실수에 대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성실한 삶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